

감성이 쑥쑥...보성 제암산 유아숲 체험원 개장

자연휴양림 내 3ha규모

4가지 테마 체험장 조성

자연과 교감하며 정서 함양

보성군이 지역 어린이들이 자연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학습할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을 개장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보성군에 따르면 웅치면 대산리에 있는 제암산자연휴양림 내에서 '제암산 유아숲체험원'을 완공하고 지난 3일 개장식을 했다.

개장식에는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들과 선생님,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해 야생화 심기, 산책로탐방, 보물찾기, 마술쇼 등을 즐겼다.

제암산 유아숲체험원은 지난 6월 총 3억원을 들여 3ha 규모의 숲 공간에 유아들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내에 개장한 유아숲 체험원에서 아이들이 야생화 심기 체험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이 뛰어놀며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제암산 유아숲체험원에는 야생화교육장과 소나무숲교육장, 물소리교육장, 산

나물채취체험장 등 4가지 테마를 갖춘 오감만족 체험장이 들어서 있다.

특히 개암나무 등 500그루의 열매숲과 밭줄놀이터, 목재놀이터, 전망대 등을 갖

추고 있으며, 산책로를 비롯한 모든 구간에 야자매트를 깔아 유아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보성군은 지난 2009년부터 '찾아가는 숲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15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협약을 체결해 매주 1~2회씩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유아숲체험원 조성으로 기존 보다 체계화·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는 숲체험 교육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위해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암산은 정상에 임금제(南)자 모양의 기암괴석이 우뚝 솟아있어 나라가 어렵고 가뭄이 들 때는 국민대만을 빌었던 신령스런 산으로,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제암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재상의 명당터로 알려지면서 연중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구례군 지리산 둘레길 걷기축제 구례군 광의면 일원에서 최근 펼쳐진 '제6회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가을소풍' 참가자들이 농촌마을길을 걷고 있다. 이번 걷기 축제에는 전국에서 1000여명이 참가했으며, 감나무농원과 농촌 논밭두렁길, 시골 돌담길, 예술인마을 등에서 성철의 걷기와 힐링 여행을 만끽했다. /구례=이성구기자 lsg@

곡성군 농업인 재활센터 개소

장비 26종·전문인력 4명...근골격계 질환 등 치료

곡성군민의 오랜 숙원인 '농업인 재활센터'가 전남지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문을 연다.

곡성군은 "8일 '농업인 재활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곡성읍에 지상 2층(462㎡) 규모로 조성

된 농업인 재활센터는 총 사업비 9억5800만원이 투입됐으며, 1층에는 재활치료를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진단기, 체외충격파

치료가 등 의료장비 26종을 비치했다. 2층에는 장애발생예방과 주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활교실을 갖추고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사와 물리치료

사, 간호사 등 4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되며, 지역 농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농부중 등 근골격계 질환을 집중 재활하게 된다.

곡성군은 그동안 빈번한 재활의료기관이 없어 인근 도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활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군민들이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보성군 별교읍 금곡마을 내 들어선 홍암나철선생기념관 개관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홍암 나철선생 기념관' 개관

출생지 금곡마을에...순명 100주기 추모제도 열어

보성군이 홍암 나철 선생 순명 100주기를 맞아 별교읍 금곡마을에 '홍암 나철 기념관'을 개관했다.

7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홍암 나철 선생 순명 100주기 추모제와 기념관 개관식에는 유족과 이수성 전 국무총리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를 비롯한 홍암 나철 선양회 회원 등 전국에서 많은 국민이 참석해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인 홍암 나철 선생의 숭고한 정신과 사상을 기리고 받들었다.

의향 보성군은 지난 2006년부터 홍암 나철 선생 생가복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홍암 나철 선생 순명 100주기를 맞아 선생께서 태어나신 별교읍 금곡마을에 홍암 나철 기념관을 개관하게 됐다.

홍암 나철 기념관은 사당 홍암사와 개천문을 비롯한 전시관인 홍암관, 대종교 독립운동관, 자료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성군은 홍암 나철 기념관을 한국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의향의 성지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고흥군 마리안느·마가렛 수녀 다큐 제작

사택 문화재 지정 등 15개 선양사업 추진

고흥군이 '소록도 할매'로 불리는 '마리안느-마가렛' 수녀의 숭고한 봉사의 참 뜻을 널리 기리고 세상에 나눴고 봉사의 에너지를 전파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병중 군수를 비롯한 (사)마리안마가렛, 다큐멘터리 제작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리안느-마가렛 다큐멘터리 제작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는 고흥 소록도 내 한센인을 돌보기 위해 소록도로 들어와 지난 2005년 오스트리아로 출국하기 전까지 40여년 간 한센인을 돌보며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고흥군은 마리안느-마가렛 수녀의 공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봉사의 숭고한 참 뜻을 널리 기리기 위해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조례 제정 및 수녀의 사택 및 성당 등문화재 지정 등 선양사업 15건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중 하나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의 추진상황과 다큐멘터리 제작 진행상황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촬영된 영상으로 이뤄진 다큐멘터리 요약본 영상이 상영됐다.

다큐멘터리 제작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소록도성당 김연준 신부는 "고흥군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은 참여 법인 임직원들도 보수 없이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마리안느-마가렛 수녀님들이 우리 소록도에 베푼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승구 고흥군 관광과장은 "마리안느-마가렛 다큐멘터리 제작은 두 수녀님의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그녀들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경매에 관한 모든 것!

오천경매

▶비법 배우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투자 하실 분 /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